

이기는 삶

인성(人性)이 먼저다

대개의 사람들은 학창시절 학교에서 IQ(intelligence quotient 지능지수(知能指數))테스트를 받아 본 적이 있다. 그런데 IQ(지능지수)테스트라는 것이 시험지를 나누어주고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식이기 때문에 문장에 대한 이해력이 좋은,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테스트였다. 물론 내용에서는 방향을 묻거나, 추리력을 테스트 하고, 계산을 하고, 또한 길을 따라 똑같이 그려나가는 문제도 있었지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IQ가 더 좋게 나오는 것이 사실이었다.

IQ와 EQ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서든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인맥을 쌓아야 성공한다고 알고 있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성적지상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다보니 학교에서는 공부만 잘하면 그만이다. 공부만 잘하면 인성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

도 우수한 인재로 대우받는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우선시하니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뒷전으로 밀리고 무시당하게 되어 매사에 소심해질 수밖에 없다. 공부를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든 기를 펴 수가 없다. 그렇다면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도 역시 우수해야 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머리만 좋고 인성이 부족한 사람은 많은 부작용을 양성하게 되어 일명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만다.

이로 인하여 EQ[emotional quotient, 감성지수(感性指數)]가 강조되게 되었다. 감성지수란 충동이나 불안과 분노와 같은 자극에서도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며,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협력하는 능력을 말한다. 즉,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과 그에 따른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능력이다. 점차 우리 사회는 IQ가 높은 사람보다는 EQ가 높은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 사회로 바뀌고 있다.

성공하는 사람도 머리가 좋은 사람보다는 인성이 좋고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 그런 사람의 주위에는 능력 있고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러한 시너지 효과로 인하여 탄탄한 인맥이 만들어지고, 지속적인 성공가도(成功街道)를 달리게 된다. 좋은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기 때문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인성이 좋다

반면 능력은 있으나 인성이 좋지 못한 사람 곁에는 웬지 가기가 싫다. 그런 사람이 상사인 경우에는 "이런 것도 못해!"라며 비아냥거리기 일쑤이고 그런 사람이 부하 직원일 경우에는 시키는 대로 안하고 꼭 자기 식으로 일을 처리한다. 그래서 "일을 왜 그렇게 했나?"고 나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참 답답하시네



요."라고 항변한다.

진정으로 직장이나 조직 사회가 원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보다는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다. 우수한 인재는 인성도 훌륭한 사람이다. 재능은 있으나 인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업무 현장에서 뛰어난 기량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 인성이 먼저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재능이 우수해도 인성이 부족하면 사람들로 부터 인정받지 못한다. 얼마나 오래 갈 사람인가? 끝까지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 바로 인간성에 그 사람의 미래가 걸려 있다.*

생의 욕구 심리상태를 알아야 불로장생 동기유발

전호에서 인간의 기본욕구인 생리적 욕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계속해서 다음 단계의 욕구에 대해서 살펴보자.

2단계 욕구는 안전욕구로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성, 보호 그리고 신체적 안전에 관한 욕구이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살려는 욕구가 강렬하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이라도 위협을 받게 되면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 빠지게 된다. 돈이 아무리 많고 높은 지위를 얻어도 생명을 위협에 빠지는 상태에 놓여 있다면 결단코 편안하고 행복할 수가 없다. 신변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삶이란 극도의 불안과 초조에 빠져 불행한 삶이 되고 만다.

3단계 욕구는 소속과 애정의 욕구로 타인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사회적 욕구다. 가족과 친구 등의 사람들과 친교를 맺는 것을 넘어서, 또 자기가 원하는 집단에 귀속되고 싶어 한다. 누구랄 것도 없이 인간이란 존재가 태어날 때부터 혼자이면서 불안정하고 무지하고 약한 상태로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심리상태에 놓이게 된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려 하고 결혼도 하고 큰 세력에 의지하고픈 것이 다 이 때문이다. 인간은 사회적 환경적 존재라는 학문적 인간 정의의 배경이기도

하다. 인간 스스로 온전하고 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구성원이 모여도 불안정하고 부족한 상태에 놓인 단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 높은 단계(원만구족圓滿具足:성격 일 처리가 등글고 너그러워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의 진입을 위해 계속해서 공부하고 노력해야 한다.

4단계 욕구는 자기존중의 욕구로 소속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명예나 권력을 누리고 싶어하는 욕구다. 사람이 본래 고상하고 우아한 존재에서 낮고 낮은 추한 죄인으로 전락되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삶·의식수준이 높아지면 물질적인 측면이 아닌, 본인의 진면목에 버금가는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 서서히 정신적 만족을 느낄 때,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욕구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본인의 영성(靈性) 신성(神性)을 조금씩 깨닫게 된다고도 볼 수 있다.

위 1~4단계의 욕구는 결핍동기에 의한 욕구 충족의 단계라고도 한다. 인간은 결핍상태가 발생하면 그러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목표 지향적 활동을 하게 된다. 이 단계의 욕구가 부족하게 되면 자긱지긱한 일들에 대한 결핍 동기가 생긴다. 부족하면 열 받고 열 받으면 동기가 더 생긴다. 중요한

점은 전단계가 대략 60%이상 만족되어야 다음 단계로 가게 된다. 만약에 욕구가 만족되지 않으면 개인의 행동을 결정짓는 동기 요인들이 된다.

5단계 욕구는 인지적 욕구로 모르는 것을 이해하고, 탐구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지식과 이해, 호기심이나 새로운 세계에 대한 탐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심리상태는 사람이 본래 모르는 것이 없었던 전지(全知)한 능력자가 현재의 인간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존재로 전락되었기 때문이다. 초능력자가 하루 아침에 바보가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갑갑하고 기가 막히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모르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앎의 욕구가 생기는 것이다.

6단계 욕구는 심미적 욕구로 자연과 예술에서 질서, 조화, 미적 감각을 추구하는 욕구다. 본래 인간의 잠재된 본성 자체가 아름답고 조화로운 미(美)의 신성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인류가 이룩해 놓은 문화와 문명의 유산물이 그걸 잘 말해 주고 있다. 이 세상에 보이는 추하고 무질서하고 부조화한 상태를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한다.

7단계 욕구는 자아실현의 욕구로 자신의 참모습의 발견과 잠재력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다.

불완전한 인간이기 이전의 상태(천국 극락 이상향 불사신 부처님 하나님)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것을 다시 실현 하려는 욕구라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인간 완성이 되면 본래의 신성(神性)을 회복하게 된다. 곧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보다도 종교성에 대한 집착과 귀소본능(歸巢本能)이 강한데, 이것은 우리 민족이 직계천속민족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민족을 통하여 불로불사의 지상천국이 건설되게 되어 있다.

위 5~7단계는 인간의 실질적인 존재의 근원을 조금씩 밝혀 들어가기 시작하는 단계다. 생리적 물질적 욕구를 충족하기보다는 보다 고차원의 내면의 정신적 행복을 추구하는 단계로 접어든다. 자신의 존재를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타인도 나와 같은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남에게 유익을 주고, 더불어 잘 살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면서 공생 공존 공익의 개념이 강한 욕구다.

우리는 대체로 이런 가치들이 다른 사람들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매슬로우는 자기실현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즉 하위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장애를 겪은 사람들은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The theory of Immortality! 영생론!

하나님은 영생의 존재이시며 마귀는 사망의 신이다.
▶ Gods are immortal and Satan is mortal.

우리의 최초의 조상이신 아담과 이브, 두 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므로 두 하나님은 태초에는 영생의 존재였다. (구약성서 창세기 1장 27절 참조)

▶ Adam and Eve, our first parents, were immortal in the beginning, for they wer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Genesis 1:27).

그러나 두 하나님이 마귀에 의해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영원성(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셨고 결국 죽었다.

▶ Since becoming possessed by Satan, however, they lost their immortality and died after all.

게다가, 그들의 죽음은 연속적인 운명이 되었다. 즉, 그들의 후손들인 우리들도 사망의 영을 계승받았었다. 이것이 바로 원죄라고 불리는 것이다.

▶ What is more, their mortality became a heritage. That is to say, their descendants succeeded to their mortality. This is what is called "Original Sin".

그래서, 전 인류는 사망의 조상, 마귀의 노예가 되었다. 인간은 6000년 동안 자손대대로 계속해서 사망의 운명을 가지게 되었다.

▶ So, the whole of mankind became the slaves of Satan, the father of death. Man has continued to die generation after generation, for six thousand years.

심지어 지금 이 순간도 죽음의 운명은 여전히 인간의 핏속에서 흐르고 있다. 그러나 영생의 피도 역시 인간의 핏속에서 흐르고 있다.

▶ Even now, mortality still runs in human blood. However, immortality also runs in human blood.

따라서, 모든 인류의 생명체들은 영생의 희망과 영원한 행복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다.

▶ Therefore, all human beings can have the hope of immortality and happiness.

영생의 조류는 급격하게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 결국, 영생론은 모든 인류에게 알려지게 될 것이며 마침내 전 인류가 영생이 당연한 것임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 The tide of immortality is rapidly spreading all over the world. Eventually, the theory of immortality will be known by all humankind and they can accept it.*

by Alice

이런 가치들에 깊은 관심을 보이지 못한다고 말한다. 가령, 외롭고 고립됐다 는 느낌이 뼈에 사무쳐 있거나, 자신감이 크게 결여돼 있는 사람이라면 이들은 선(善)과 공익(公益)에 대한 가치보다는 그 반대의 가치(악함, 추함, 혼란, 파괴...)에 더 끌리게 된다는 것이 매슬로우의 설명이다. 심리학자 칼 융도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내면 개발의 욕구 그리고 삶의 의미를 깨닫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런 욕구들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많은 신경·정신질환들을 갖게 된다고 했다.

매슬로우의 논지나 칼 융의 분석은 자기실현이나 삶의 의미 발견에 대한 욕구가 '추진력'을 얻기 위해선 먼저 육체적/정신적인 '결핍 상태'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신체적

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뭔가 결핍돼 있는 상태라면 자기실현에 대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일 수가 없다.

매슬로우의 자아실현의 개념은 인간 본성(양심 신 하나님 부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사람이 자아 발전에 제대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거나 지극히 반사회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의 본성 때문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욕구 충족이 되지 않았거나 동기가 충분히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외부로부터 인간의 기본 욕구가 갖춰져 충분한 동기가 부여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능력(전지전능 영생) 개발은 물론 공동의 선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다.*

- 다음호에 계속 김주호 기자

영생의 도를 닦는 사람들 이야기

도서출판 해인



'삶'이라는 苦海(고해) 쉽게 건너가는 이야기

이긴자를 만난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다

독후감을 모집합니다

전국서점 판매 중
당신의 삶이 바뀔 거예요!!



이 책을 읽고 느낀 소감이나 하고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사례를 드립니다. 분량이 적거나 많거나 아무 상관 없습니다. 구세주 하나님을 위한 일은 어떤 것이더라도 그 의미가 상당히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